



3면

도의회,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 촉구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음 11월 2일) 제340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기로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

## AI 차단 방역 강화 호소

### 우범기 전주시장, 비전 발표

2028년까지 1조300억 투입  
롯데쇼핑과 변경협약 체결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전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주)과 함께 앞으로 5년 6개월 안에 1조300억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가 될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협약체결 이후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는 1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은 시와 롯데쇼핑(주)이 최근 체결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시행 변경 협약의 연장선으로, 우시장과 정 대표이사는 이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변경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시와 롯데쇼핑(주)이 체결한 사업시행 변경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서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은 기존 제1종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에서 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하고, 수익시설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제외한 호텔과 백화점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업방식도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12만715㎡) 중 53%(6만3,786㎡)를 민간사업자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3만3,000㎡)를 롯데쇼핑에 변경하는 '대물 변경' 방식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변경협약서에는 사업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 66개월)과 착공기한(협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 명시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사업비는 당초 95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글로벌 MICE산업 핵심 거점 공간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 △메타버스 융복합 청년 스타트업 공간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열린 광장 등 4가지 비전의 총 6개 전시·회의·문화·예술·교육·창업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변경된 협약 내용에 따라 내년 1월 중에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는 이날 "롯데쇼핑과 전주시가 힘을 합쳐 건립할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광역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사는 복합형 현대의 새로운 쇼핑 등 문화의 공간을 조성해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부지가 마이스산업 거점으로 탈바꿈되면 기업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거점 공간으로서의 몫을 다 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뒤쳐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전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돼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도내 AI 발생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김관영 도지사, 긴급 영상회의서 대도민 담화문 발표

최근 도내에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대도민 담화문을 내고 가금농장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닭·오리고기 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13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 들어 지난 12월 1일 전주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도내 가금농가 6호(익산4, 김제2, 완주1) 및 야생조류 2건(만경강1, 정읍천1)이 각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생농장 살처분, 방역대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철새도래지·밀집 지역 집중 소독, 역학조사 정밀감사, 가금계열사 방역협의회 개최, 가금전담관을 활용한 농가 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 차단방역 강화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독 등 긴급 방역 활동을 위해 시·군 등에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농가의 강도 높은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들께서도 피해를 입는 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실의를 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철저한 감사를 통

해 출하되기 때문에 식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구매를 통해 축산농가를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농가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축산농가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방역체계를 재확립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축질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축사 내·외 매일 2회 이상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 소독 및 장용 방역복과 장화 등 같이 신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지역 축제·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을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 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서 태평양~한국전쟁 시기 인공굴 30기 발견

시, 월명동·동흥남동·신관동 등서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군산시 소재 인공굴 기초조사를 통해 월명동, 동흥남동, 신관동 등에서 태평양전쟁~한국전쟁시기 인공굴 30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산은 북쪽의 금강, 남쪽의 만경강, 서쪽의 서해로 3면이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군산도를 중심으로 63개의 섬이 있는 곳이다.

나지막한 구릉, 기름진 평야, 넓은 갯벌 등을 통해 풍요로운 군산은 고대부터 해양문화교류의 중심지로 객관, 송산행궁, 군산진 등 다양한 해

양관련 시설이 있었으며, 1899년 대한제국이 각국조계지역으로 개항한 도시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 기록, 시

대별 항공사진 등 관련 문헌자료 조사를 토대로 시와 주민들의 기억을 모으는 구술자료 수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산출기를 기준으로 월명지구, 팔마지구, 미룡지구, 옥구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월명지구 4기, 팔마지구 3기, 미룡지구 17기, 옥구지구 6기 등

총 30기의 인공굴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기록과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인공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문화유산 등록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기에 대한 물리탐사 및 내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음의 맛 상화차**

찬바람 불면 정음 상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정음시